

생분해성 플라스틱 안경테 개발

엔피아이, 서전안경과 공동으로 ... 환경인증 획득 후 본격 판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안경테로 새롭게 응용되고 있다.

서전안경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생산기업 엔피아이와 공동으로 생분해성 안경테 제조에 성공해 1년간 제품테스트를 마쳤다고 3월16일 발표했다.

석유계 플라스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플라스틱 안경테는 자연계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안경테는 사용 후 폐기·매립될 때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환경인증마크를 출원한 상태이다.

서전안경은 생분해성 제품임을 인증하는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데로 전 세계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7>